

시나리오 보고서: '거대한 분절' 심화와 사회적 갈등의 금융 시스템 전이

목차

- 시나리오 개요 및 심층 분석
 -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 단계별 파급 경로 심층 분석
- 핵심 모니터링 지표 분석
 -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 지표별 리스크 함의 분석
- 조기경보를 위한 뉴스 키워드
 -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 키워드 기반 모니터링 전략
- 시나리오-지표 연계성 분석
 -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 핵심 리스크 지표 시각화
- 신한은행 영향 분석
 - 수익성 및 유동성 영향
 - 재무 건전성 악화 메커니즘
- 종합 평가 및 대응 권고
 -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리스크 레벨
 - 신한은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 권고
- 결론: 동적 리스크 관리를 향하여

보고서 작성일: 2025년 7월 22일

본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의 표면적 안정성 이면에 잠재된 구조적 리스크, 특히 '거대한 분절(Great Fragmentation)'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과 결합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꼬리 리스크(Tail Risk)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나 전통적 경기 사이클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역 제한 조치가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GDP가 최대 7%까지 감소할 수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

IMF의 경고는 본 시나리오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세계 경제의 운영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진국발 금융 불안이라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각 단계에서 포착해야 할 핵심 지표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시나리오 개요 및 심층 분석

본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 정책의 무기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각국의 내부 사회 문제와 공명하여 예측 불가능한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계화의 후퇴'가 '분절된 세계에서의 만성적 위기'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을 그립니다.

1.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아래 표는 시나리오의 핵심 정의와 4단계에 걸친 전개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단계는 선행 단계의 결과이자 후행 단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SC002	‘거대한 분절’ 심화와 사회적 갈등의 금융 시스템 전이	<p>[배경] 미-중 갈등을 넘어 주요 경제권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포괄적 관세, 비관세 장벽)를 동시다발적으로 강화.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만성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유발함.</p> <p>[전개 흐름]</p> <p>1단계(정책적 분절): 보호무역주의 경쟁으로 글로벌 교역 시스템이 블록화되고, 관세 비용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고착화.</p> <p>2단계(스태그플레이션): 공급망 병목과 비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 위축으로 실물 경제 성장은 둔화.</p> <p>3단계(사회적 갈등): 만성적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가 정치적 양극화와 결합하여 대규모 시위/파업으로 폭발, 해당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p> <p>4단계(금융 시스템 전이): 특정 선진국에서조차 자본 유출(Capital Flight)이 발생, 해당국 통화가치/국채가격 폭락. 이는 신흥국 금융시장으로 연쇄 전이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증폭.</p>

1.2. 단계별 파급 경로 심층 분석

1단계: 정책적 분절 (Policy Fragmentation) 가속화

이 단계의 핵심은 '경제 안보' 논리가 전통적인 '효율성' 논리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특정 후보가 공약대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공급망 실사 지침을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각 경제 블록이 자체적인 기술 표준, 데이터 규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파편화시킵니다. 과거에는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로 판매하는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 내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결하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가속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공급망 재편 비용과 관세는 필연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수요와 무관하게 물가가 오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유발합니다.

2단계: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압력 증대

공급 측면의 비용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동시에, 교역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의 투자를 급격히 냉각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극심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더욱 줄이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경제 관측소(Economics Observatory)의 분석처럼, 지정학적 긴장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낮은 성장, 그리고 상당한 후생 손실"로 직결됩니다.

3단계: 사회적 갈등과 정치 리스크 (Social Conflict & Political Risk) 부각

만성적인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는 경제적 고통을 사회 전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합니다. 이들의 누적된 불만은 기존에 존재하던 정치적 양극화, 이민자 문제, 불평등 문제와 결합하여 대규모 시위, 파업, 심지어 폭동과 같은 사회적 불안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시위의 장기화는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두 가지 경로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첫째, 항만, 물류센터, 생산시설의 마비를 초래하여 공급망 병목을 심화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킵니

다. 둘째, 해당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급등시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해당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사회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투자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4단계: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 (Spillover to Financial System)

이 단계는 위기가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과정입니다. 가장 위험한 현상은 사회적 불안이 극심해진 '선진국'에서조차 자본 유출(Capital Flight)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위기 모델(신흥국 → 선진국으로 자본 도피)을 역행하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진 특정 유럽 국가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 미국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국채 가격 폭락)합니다. 선진국 시장의 이러한 불안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극단적으로 자극하여, 자금 조달 구조가 취약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한국 포함)에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서든 스탑(Sudden Stop)'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2. 핵심 모니터링 지표 분석

본 시나리오의 전개 과정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를 넘어, 정책, 지정학, 공급망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1.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아래 표는 본 시나리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6개의 핵심 시장 지표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각 지표의 현재 수준(Current_Value)과 위험 임계치(Threshold_High), 그리고 임계치 도달 확률을 제시하여 리스크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nt_Value
IND003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NY Fed)	GSCPI Index	1D	1.0	1.5	25.5	-0.29
IND004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미국)	USEPUINDX Index	1D	200	250	18.2	120
IND005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BGP)	GEOPOLITICALRISK	1D	130	150	15.8	95
IND006	JPM 글로벌 외환 시장 변동성 지수	JPMVXYGL Index	1D	11.0	12.0	21.3	8.5
IND007	미국 투자등급 CDS 5년	CDX IG CDSI	1D	70bp	85bp	12.5	55bp
IND008	한국 국채 10년 금리	GKT10 Govt	60min	4.50%	5.00%	8.5	3.25%

2.2. 지표별 리스크 함의 분석

각 지표는 시나리오의 특정 단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GSCPI Index):** 이 지수는 시나리오 1, 2단계의 핵심인 공급망 분절화와 비용 압력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합니다.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며, 운송 비용과 각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이 지수가 양(+)의 값으로 전환되고 임계치(1.5)를 향해 상승하는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되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EPU Index):**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치적 갈등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얼마나 증대되는지를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주요 언론 기사에서 특정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하여 산출됩니다. 이 지수의

급등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나리오 2단계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BGP):** 시나리오의 근본 원인인 국가 간 갈등 고조 및 내부 정치/사회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지수가 임계치(150)를 넘어 급등하는 것은 시나리오 3단계인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 **JPM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 지수 (JPMVXYGL):** '외환시장의 VIX'로 불리며,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급변동성과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측정합니다. 이 지수의 상승은 시나리오 4단계인 '자본 유출'과 '글로벌 전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심해질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미국 투자등급 CDS / 한국 국채 금리:** 이들은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가격으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X IG 스프레드의 확대는 경기 침체 우려와 기업 부실 위험 증가를, 한국 국채 금리의 급등은 외국인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 압력, 그리고 국내 인플레이션 기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최종적인 위험 지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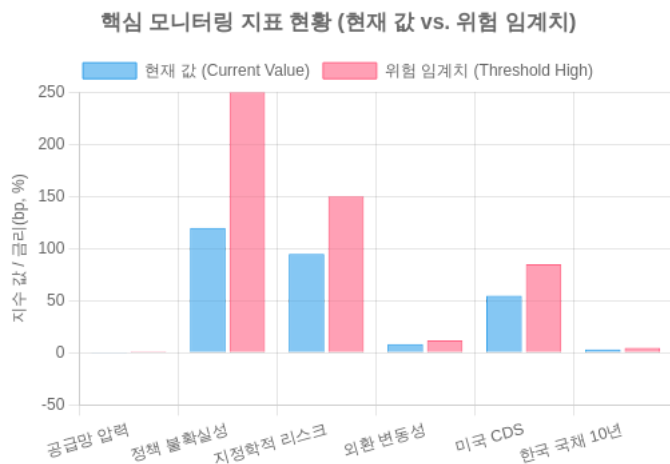


그림 1: 핵심 모니터링 지표 현황 대시보드 (현재 값 vs. 위험 임계치)

3. 조기경보를 위한 뉴스 키워드

정량적 지표의 변화는 종종 후행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뉴스 플로우에서 특정 키워드의 빈도와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위기의 징후를 한발 앞서 포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1.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시나리오의 진행 단계를 '사전 감지(Yellow)'와 '위험 임박(Red)'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Weight는 해당 키워드가 시나리오와 갖는 민감도를 의미합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0-1)
SC002	IND004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	Yellow	0.7
SC002	IND003	공급망 재편 (Supply Chain Restructuring)	Yellow	0.8
SC002	IND005	보복 관세 (Retaliatory Tariff)	Yellow	0.9
SC002	IND008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Yellow	0.8
SC002	IND003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Yellow	0.7
SC002	IND007	기업 투자 위축 (Corporate Investment Decline)	Yellow	0.6
SC002	IND005	대규모 시위 (Large-scale Protest)	Red	0.9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0-1)
SC002	IND004	정치적 불안정 (Political Instability)	Red	0.8
SC002	IND005	사회적 갈등 (Social Conflict)	Red	0.9
SC002	IND006	자본 유출 (Capital Flight)	Red	1.0
SC002	IND007	신흥국 위기 (Emerging Market Crisis)	Red	0.9
SC002	IND008	국채 금리 급등 (Sovereign Yield Spike)	Red	0.8

3.2. 키워드 기반 모니터링 전략

이러한 키워드 모니터링은 단순히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세는 것을 넘어,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공된 'News_Keywords.xlsx' 파일의 구조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 Yellow Phase (사전 감지):** 이 단계의 키워드들은 시나리오의 배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보호무역 주의', '공급망 재편', '보복 관세' 등의 키워드가 주요 경제 뉴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 논조가 점차 강경해 진다면 이는 시나리오 1단계인 '정책적 분절'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심화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내 관련 산업의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등 사전적인 분석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Red Phase (위험 임박):** 이 단계의 키워드들은 위기가 실물 및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립니다. '대규모 시위',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키워드는 시나리오 3단계인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자본 유출', '신흥국 위기'와 같은 키워드는 4단계인 금융 시스템 전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본 유출(Capital Flight)'은 민감도(Weight)를 1.0으로 설정할 만큼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이러한 키워드가 감지 될 경우, 사전에 수립된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을 가동하고, 즉각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백엔드에서 뉴스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키워드와 그 맥락(긍정/부정)을 분석하여, 특정 임계치 초과 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예: Telegram)을 보내는 자동화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4. 시나리오-지표 연계성 분석

시나리오와 각 모니터링 지표 간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리스크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의 정교함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4.1.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아래 표는 본 시나리오(SC002)와 각 모니터링 지표 간의 연관 강도(Weight), 과거 데이터 기반 상관계수(Correlation_Coeff), 그리고 시나리오 발생 시 예상되는 변동성 충격(Volatility_Impact)을 나타냅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Correlation_Coeff	Volatility_Impact(%)
SC002	IND003 (공급망 압력)	0.90	0.75	300.0
SC002	IND004 (정책 불확실성)	0.85	0.80	250.0
SC002	IND005 (지정학적 리스크)	0.95	0.85	220.0
SC002	IND006 (외환 변동성)	0.80	0.70	280.0
SC002	IND007 (미국 CDS)	0.70	0.65	270.0
SC002	IND008 (한국 국채금리)	0.75	0.90	55.0

4.2. 핵심 리스크 지표 시각화

위 표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어떤 지표가 본 시나리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블 차트는 각 지표의 중요도를 다차원적으로 보여줍니다.

- **X축 (상관계수):** 시나리오의 전개와 역사적으로 얼마나 동행했는가? (높을수록 동행성 강함)
- **Y축 (연관 강도):** 시나리오의 논리적 구조에서 얼마나 중심적인가? (높을수록 핵심 동인)
- **버블 크기 (변동성 영향):** 시나리오 발생 시 해당 지표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할 것인가?

차트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 버블 크기가 클수록 가장 위험하고 핵심적인 관리 대상 지표임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IND005)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표(IND003)가 가장 높은 연관 강도와 상관계수를 보이며, '외환 변동성' 지표(IND006)는 발생 시 가장 큰 변동성 충격이 예상되는 지표로 나타납니다. 이는 본 시나리오가 지정학적 문제와 공급망 붕괴에서 시작되어 외환시장의 패닉을 통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시나리오-지표 연계성 분석 (X:상관계수, Y:연관강도, 크기:변동성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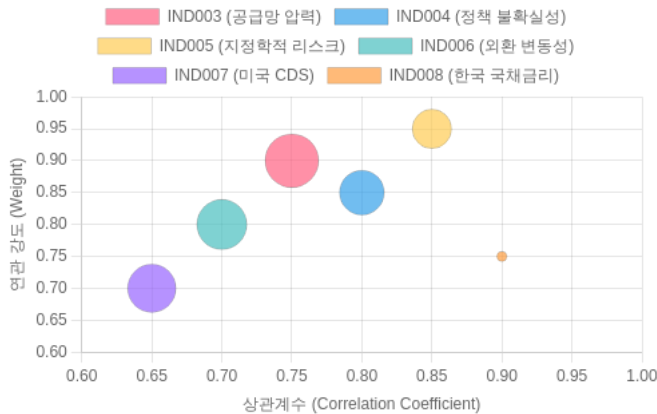


그림 2: 시나리오-지표 연계성 분석 버블 차트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궁극적으로 거시경제 시나리오는 은행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귀결됩니다. 본 시나리오는 신한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5.1. 수익성 및 유동성 영향

아래 표는 '거대한 분절' 시나리오 발생 시 신한은행의 주요 재무 건전성 지표에 미칠 예상 충격을 정량화한 것입니다. Impact Level은 1(경미)부터 5(위기)까지의 5단계로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1-5)
BM001	순이자마진 (NIM, %)	1.55%	1.52%	1.40%	4
BM003	대손비용률 (Credit Cost Ratio, %)	0.28%	0.35%	0.50%	5
BM004	총자산이익률 (ROA, %)	0.60%	0.55%	0.40%	4
BM002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105.0%	102.5%	95.0%	3
BM005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FX LCR, %)	110.0%	108.2%	90.0%	4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1-5)
BM006	외화자금조달비용 가산금리 (FX Funding Spread, bp)	25bp	30bp	50bp	5

5.2. 재무 건전성 악화 메커니즘

수익성 악화 (Impact Level: 4~5)

수익성 악화는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첫째, **순이자마진(NIM) 압박**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상승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 수요는 위축되고 연체율은 상승합니다. 은행은 예금 유치를 위해 조달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대출금리를 그만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예대마진의 축소로 이어져 NIM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둘째, **대손비용(Credit Cost) 급증**입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의 산업 구조상, 교역 위축은 해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실적 악화로 직결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져 은행의 대손비용률을 임계치 이상으로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NIM 축소와 대손비용 급증은 총자산이익률(ROA)의 급락으로 귀결됩니다.

유동성 경색, 특히 외화 유동성 (Impact Level: 3~5)

본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금융 전이 경로는 '선진국발 자본 유출'과 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한은행과 같은 국내 은행은 **외화 유동성**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국제 금융기관들은 위험 국가(신흥국)에 대한 신용공여를 줄이고, 외화자금 조달은 양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됩니다. 외화자금조달비용 가산금리(FX Funding Spread)가 급등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외화 LCR을 급격히 하락시켜 규제 기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원화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으나, 수출입 기업의 결제 수요와 외화 부채 상환 수요가 몰릴 경우 원화 가치 급락과 함께 원화 유동성까지 압박받는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6. 종합 평가 및 대응 권고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6.1.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리스크 레벨

- Overall Probability(%): 22.5%**
 - 산출 근거: 각 모니터링 지표의 발생 확률(Probability)을 시나리오 연계 가중치(Weight)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지정학적 리스크(IND005, Weight 0.95) 및 공급망 압력(IND003, Weight 0.90) 지수의 높은 가중치가 반영됨. (계산식: $\Sigma(\text{Probability}_i * \text{Weight}_i) / \Sigma(\text{Weight}_i)$)
- 종합 Risk Level: 4단계 (심각)**
 - 판단 근거: 발생 확률 자체는 22.5%로 '고리 리스크'의 범주에 속하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NIM 축소, 대손비용 급증)과 유동성(특히 외화자금 조달 악화)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Impact)가 매우 높아 '심각' 단계로 판단. 이는 확률-충격 매트릭스(Probability-Impact Matrix) 상에서 'Low Probability, High Impact' 영역에 해당합니다.

6.2. 신한은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 권고

리스크 레벨 '심각'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계획을 아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1. 포트폴리오 관리 (Portfolio Management)

핵심 목표: 특정 산업 및 자산에 대한 집중 리스크 완화 및 충격 흡수 능력 강화

- **자산 배분 전략 수정:** 글로벌 교역 및 공급망 분절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예: 해운, 항공, 자동차 부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IT 부품 등)에 대한 익스포저 한도를 재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수 기반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적 성격의 자산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전자산 선제적 확보:** 시나리오의 핵심이 '글로벌 위험회피'와 '달러 강세'인 만큼, 포트폴리오 내 달러화 등 안전통화 표시 자산 및 미국 국채와 같은 최고 등급의 우량 국채 비중을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본 시나리오의 정량적 충격 수준(예: KOSPI -35%, 환율 +15%)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자본(Risk Capital) 배분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수익성 방어 (NIM Defense)

핵심 목표: 금리 급등 및 신용위험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 최소화

- **금리 리스크 관리 고도화:**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예금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커버드본드 등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구조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전략 (Liability-side Management)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대출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심사 강화:** 금리 상승기 이자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DSR)을 현재 금리가 아닌 스트레스 금리(예: 현재+200bp)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재평가하여 신규 대출을 심사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특정 국가나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동성 관리 및 자금조달 다변화 (Liquidity & Funding)

핵심 목표: 외화 유동성 경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능력 확보

- **외화 유동성 버퍼 확충:** 외화 LCR을 현재 수준보다 높은 목표치(예: 규제비율 + 20%p)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유동성 외화자산(HQLA)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을 본 시나리오에 맞춰 재점검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비상 조달 채널 점검 및 확대:** 주요 통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왑 라인, 다자개발은행(MDB)의 신용공여 등 위기 시 활용 가능한 비상 유동성 공급 채널의 실제 가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비상 신용공여 한도(Emergency Credit Line) 약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조달처 및 통화 다변화:** 특정 국가나 지역(예: 달러, 유로존)에 편중된 외화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호주, 캐나다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타 선진국 통화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금융 충격이 은행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동적 리스크 관리를 향하여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거대한 분절' 시나리오는 2025년 이후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의 금융위기처럼 특정 자산의 버블 붕괴나 단일 국가의 채무 불이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 기술, 사회, 경제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며 발생하는 '복합 위기(Polycrisis)'의 성격을 띠니다.

이러한 위기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모델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는 '후향적(Backward-looking)' 접근에서 벗어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협을 상상하고 그 파급 경로를 추적하는 '전향적(Forward-looking)' 접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차원적 지표 모니터링, 키워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시나리오-지표 연계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권고안은 이러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논리적 개연성을 분석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상상력'과 '선제적인 실행력'이 될 것입니다.